

로마가 비전을 수립하다 - 10번

최후의 논쟁: 요엘서, 뉴욕의 몰락, 그리고 재림 역사에서의 로마의 상징

Jeff Pippenger

2024-08-26

재림 역사 속에서 로마의 상징을 둘러싼 다른 역사적 논증들과 함께 묶어 다루고자 하는 마지막 논쟁은 요엘서에 관한 것이다. 그 논쟁은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일어났으며, 그 시기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몇 가지 미묘한 점을 놓치기 쉽다. 그 정황을 맥락에 놓기 위해서는 밀러 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40년 8월 11일, 요한계시록 9장 15절의 시간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네 천사가 풀려났으니, 그들은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하여 그 시와 날과 달과 해에 예비되어 있었다. 요한계시록 9:15.

그 구절은 '한 시간과 하루와 한 달과 한 해'가 391년 15일에 해당한다고 밝힌다. 네 천사는 이슬람이 세력을 얻어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때를 상징하며, 그 시작은 1449년 7월 27일이었다. 그 시작점은 150년에 관한 다른 시간 예언의 종료점을 기점으로 삼아 결정되었다. 150년에 관한 첫 번째 시간 예언은 첫째 화의 역사 속에 제시되었는데, 이는 또한 요한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이기도 하다. 그 150년 예언이 1449년 7월 27일에 끝나자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시간 예언이 시작되었고, 391년 15일이 지난 뒤인 1840년 8월 11일에 그 예언이 끝났다.

윌리엄 밀러는 요한계시록 9장의 세력들을 이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1840년 8월 11일 이전에 밀러파 신자 조시아 리치는 예언에 근거해 1840년에 오스만 제국의 패권이 종식될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했다. 1840년 8월 11일 열흘 전, 리치는 자신의 예측을 세밀하게 다듬어 수정·보완하여, 예언이 성취될 때를 연도만이 아니라 연·월·일까지 특정했다. 화이트 자매는 그 사건이 성취되었을 때 리치의 예측이 밀러파 종교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언급한다.

1840년에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 성취가 널리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로부터 2년 전, 재림을 설교하던 주요 목회자 중 한 사람인 조시아 리치는 오스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하며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한 해설을 발표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 권세는 ... 1840년 8월 11일에 전복될 것이며, 그때 콘스탄티노플의 오스만 권세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이는 사실로 판명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정해진 바로 그때, 터키는 자국 대사들을 통해 유럽의 연합 열강의 보호를 받아들였고, 이로써 자신을 기독교 국가들의 통제 아래에 두었다. 이 사건은 그 예언을 정확히 성취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의 원칙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추진력이 붙었다. 학식과 지위를 갖춘 이들이 설교와 그의 견해를 출판하는 일에서 밀러와 힘을 합쳤고, 1840년부터 1844년까지 그 일은 급속히 확장되었다. 대쟁투, 334, 335.

이 사건에 대한 그녀의 지지는 세월이 흐르며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거듭 공격받아 왔다. '일곱 때'와 'the daily'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진리를 공격하는 것은 두 개의 거룩한 판에 제시된 기초와 예언의 영의 권위까지도 거부하는 것이다. 사탄이 이 역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애써 온 이유는 복합적이다.

리치의 예언은 "밀러가 채택한 예언 해석의 원칙"을 사용했다. 밀러는 예언적 시간에 대한 통찰을 받았고, 그의 기별이 예언적 시간에 기초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든 1843년과 1850년의 개척자 도표를 검토하기만 하면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1840년 8월 11일 이전에는, 밀러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예언에 반대하는 이들은 예언적 시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언제 돌아오실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들은 자주 성경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다"는 말씀을 그의 기별과 사역에 저항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있던 날들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그러하였고, 홍수가 와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리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마태복음 24:36-40.

이 구절에도 불구하고 밀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예언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증거가 매우 많다고 보고 활동을 계속했으며, 훗날 화이트 자매가 규정한 한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다"는 말은 재림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이 가장 자주 내세운 논거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36. 주를 기다리던 이들은 이 본문에 대해 분명하고 조화로운 해석을 제시했으며, 반대자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한 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이 말씀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신 뒤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잊을 수 없는 대화 중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라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징조들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절, 33절. 구주께서 하신 한 말씀로 다른 말씀을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오심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이 가까웠음을 알도록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알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웠는지를 알기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홍수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배운다. 그리고 같은 장의 비유—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을 대조하고, 마음에 '내 주인이 오시기를 더디 하신다'고 말한 자의 종말을 제시하는 그 비유—는, 깨어 그분의 오심을 가르치는 자들과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갚으실지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분이 말씀하신다.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42절, 46절. '그러므로 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3." 대쟁투, 370.

리치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학식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 밀러와 연합하여 그의 견해를 설교하고 출판했으며, 1840년부터 1844년까지 그 사업은 급속히 확장되었다.” 예언 해석에 대한 그의 규칙들이 타당한 규칙으로 확인되었을 때 밀러의 메시지는 힘을 얻었다. 시한 예언의 성취에 대한 반응으로, 밀러의 규칙이 확인되고 많은 이들이 밀러주의 운동에 합류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확인된 것이 밀러의 여러 규칙 가운데 주된 규칙이었다는 점이었다. 또한 그 확인은, 다섯째·여섯째·일곱째 나팔로도 불리는 세 가지 화 가운데 둘째 화에 관한 예언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밀러의 기별이 권능을 받은 사건은 밀러주의 개혁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의 침례로 표상되었다. 그것은 이전의 언약 백성(개신교인들)의 최종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표시했다. 그것은 전체 밀러주의 운동과 기별을 향한 사탄 공격의 초점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온 위대한 여정의 역사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하려고 사탄이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질문도 그 사탄의 폐하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주님의 권능과 큰 영광으로 속히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은 진리이며, 1840년에 그것을 선포하는 많은 음성이 일어났다. Manuscript Releases, 제9권, 134쪽.

2001년 9월 11일에 셋째 화가 예언적 역사 속으로 도래했다. 그 사건은 1989년에 시작된 셋째 천사의 운동이 채택한 예언 해석의 주된 원칙을 확증했다. 그 개혁 운동의 사자에게 처음으로 열려 준 진리는 1989년에 열렸고, 그것은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개혁 운동들이 서로 병행하여 진행되며, 14만 4천의 운동, 곧 셋째 천사의 운동의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줄 위에 줄로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진리였다. 내가 처음으로 공개 발표를 한 것은 1994년, 아니면 아마 1995년의 캠프 집회에서였다. 그 발표는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서로 병행하는 개혁의 선들에 관한 것이었다.

2001년 9월 11일에 셋째 화와 관련된 이슬람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1840년 8월 11일과 상응했다. 1840년에는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예언이 밀러파의 메시지를 확증했으며, 2001년 9월 11일에는 셋째 화의 예언이 Future for America의 메시지를 확증했다. 그 사실이 인정되자, 이전에는 주로 한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 운동에 수많은 사람이 합류했다. 그 후 그 운동의 메시지와 전달자는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1840년의 역사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사탄의 공격의 초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퓨처 포 아메리카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그 역사의 사자가 정리한 예언 해석의 규칙들을 채택했다. 그 규칙들 가운데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의 삼중 적용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 사자는 어떤 예언적 진리들이 세 가지 특정한 성취를 통해 드러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밀러파의 역사가 14만 4천의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고 믿었기에, 1840년 8월 11일이 2001년 9월 11일을 예표한다는 것과 다른 거룩한 개혁 노선들 역시 바로 그 동일한 이정표를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셋째 천사의 개혁선에서 모든 거룩한 개혁선의 반복에 대한 증거를 열어 보이셨다. 밀러파의 역사가 열 처녀의 비유를 철저히 문자 그대로 성취한

것처럼, Future for America의 역사도 또한 그러함이 보였다.

"나는 종종 열 처녀의 비유, 곧 그중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였던 그 비유를 떠올린다. 이 비유는 이 시대에 특별한 적용이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이미 성취되었으며, 때의 끝까지 계속해서 현재의 진리로 남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8월 19일.

요한계시록 10장의 일곱 우레는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밀러파의 경험과 2001년 9월 11일부터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빛은 일곱 우레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개요였다...

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낸 뒤에, 작은 책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명령이 임한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하라.' 이것들은 장차 그 순서대로 드러날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71쪽.

화이트 자매가 셋째 천사의 운동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운동과 병행한다고 직접 말했음이 인정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들에게 예언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자리를 주셨으며, 그들의 사역은 이 지구 역사의 끝이 올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이며, 뒤따르는 이 기별과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그의 경고를 선포한다. "이 일 후에"라고 요한은 말했다. "나는 큰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조명 속에는 세 기별의 빛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 1888년 자료집, 803, 804.

첫째와 둘째 천사의 운동은 셋째 천사의 운동과 병행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운동에 힘을 부여한 예언은 첫째 화와 둘째 화의 때에 관한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권능을 얻었고, 셋째 천사의 운동도 셋째 화에 관한 예언의 성취로 힘을 얻었다.

1840년 8월 11일과 마찬가지로, Future for America의 메시지가 입증되었을 때 Future for America가 채택한 예언 해석의 원칙의 정확성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었고",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추진력이 부여되었다." "학식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Future for America와 연합하여 Future for America의 예언적 메시지를 "설교에서도 출판에서도" 전했다. 2001년 9월 11일이 예언 성취임을 분명히 증명해 준 Future for America의 구체적 규칙은 "예언의 삼중 적용"이었다.

두 개의 거룩한 도표에 제시된 첫째 화와 둘째 화와 관련한 이슬람에 대한 기초적 관점을, 그 메시지를 가르친 이들의 기록된 증언과 함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첫째 화와 둘째 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언적 특징들을 인식하게 된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리는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해 확립된다고 거듭 가르친다. 첫째 화의 예언적 특징이 둘째 화의 예언적 특징과 결합될 때, 셋째 화의 예언적 특징이 확립된다. 이슬람의 삼중 적용은

2001년 9월 11일에 셋째 화가 도래했음을 밝히는 데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대부분은 그 증거에 눈을 감기를 선택하지만 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예언의 삼중 적용은 2001년 9월 11일에 셋째 화가 임하였음을 확증하였다. 그때 그 규칙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밀러주의자들의 시대와 14만 4천의 시대 모두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때와 맞물려 있다. 두 역사 모두 열 처녀의 비유의 성취이며, 그 비유에서 밤중소리의 기별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사이의 구별이 드러나는 곳이고, 또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능력을 입는 곳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날 즈음, 나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의 광선은 태양처럼 밝아 보였다. 그리고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나아가 그분을 맞으라!'"

이것이 한밤중의 외침이었으며,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져 낙담한 성도들을 일깨우고 그들 앞에 놓인 큰 사업을 준비시키게 하였다.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별을 맨 먼저 받은 것은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손하고 헌신적인 이들에게 보내어져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외치도록 강권하였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나가서 그를 맞으라!' 초기 문집, 238쪽.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은 밤중소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역사에서도 반복된다.

하늘에서 온 강한 천사를 돕도록 다른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음성들을 들었다. '내 백성아, 그 가운데서 나오라. 그곳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의 재앙을 받지 말라. 이는 그곳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 기별은 셋째 기별에 덧붙여진 것처럼 보였고, 1844년에 한밤중의 외침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결합되었던 것처럼 그것과 결합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내하며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전하여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호소하였다. 이는 그들이 그 두려운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하려 함이었다. 영적 은사, 제1권, 195.

예언의 삼중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예언의 삼중 적용을 나타내는데, 이는 두 역사 모두에서 그 메시지가 바벨론이 두 번 무너졌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바벨론, 그 큰 성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14:8.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는 1840년 8월 11일에 첫째와 둘째 화에 관한 예언이 성취됨과 함께 강림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2001년 9월 11일에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의 강림을 예표하였다. 그분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는 이어서 선포하였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 있게 외쳐 말하였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새장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18:2.

제14장의 둘째 천사의 메시지와 제18장의 능한 천사의 메시지는 바벨론이 두 번 무너졌음을 밝히며, 그 메시지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을 지목하고 있다. 그 메시지가 마지막 때의 바벨론을 지목하는 것은, 바벨론이 이전에 니므롯의 시대와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에 두 차례 무너졌던 사실이,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 기록된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의 몰락의 예언적 특징을 확립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 바벨론의 그 몰락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두 차례 이전의 몰락이라는 두 증인이 필요하다. 이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길로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능한 천사가 내려왔고, 그의 선포를 통해 예언의 삼중 적용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2001년 9월 11일을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성취된 날로 확정지은 예언의 삼중 적용은 세 화의 삼중 적용이었다.

그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이들이 Future for America의 운동에 합류했고, 그들은 Future for America가 사용해 오던 예언 해석의 원칙들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1840년 8월 11일이 반복되었지만, 그 반복이 밀러의 기본 규칙, 곧 성경 예언에서 하루가 일 년을 나타낸다는 원칙을 확증해 준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Future for America의 핵심 원칙은 밀러주의자들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가 셋째 천사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1840년이, 화이트 자매가 사탄을 지칭할 때 쓰는 '그의 사탄적 폐하'의 구체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라면, 2001년 9월 11일의 역사 또한 유사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리스트, 예수회, CIA, 부시 가문, 또는 그 세력들의 조합의 역할을 지목하는 음모론들을 보게 된다. 그런 이론들은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따라서 14만 4천의 운동의 역사 속에 세 번째 화가 도래했음을 표시했다는 생각을 반박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릴 것이라고 선언했다고들 말합니까? 나는 결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서 층층이 올라가는 거대한 건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땅을 심히 흔드시려고 일어나실 때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이 벌어지겠는가! 그때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이 땅에 임할 것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나는 뉴욕에 무엇이 임할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바 없다. 다만 언젠가 그곳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뒤집고 또 뒤엎으심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만은 안다. 내게 주어진 계시로 나는 세상에 파괴가 임해 있음을 안다. 주께서 한마디만 하시고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한 번만 손대셔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두려운 장면들이 전개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6년 7월 5일.

진실이 전혀 없든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든, 모든 음모론은 그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져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였다는 진리를 훼손한다. 그러한 각종 음모론은 진리를 겨냥해 운동 밖에서 가해지는 사탄의 공격이지만, 그는 또한 운동 내부에서도 진리를 무너뜨리려 일했다. 그러한 내부 공격 중 하나는 요엘서의 대상이 로마라는 해석을 거부하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 논란은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너희 늙은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땅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일이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있었느냐?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자녀는 또 다른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술 취한 자들아, 깨어 올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울부짖으라. 이는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강하고 무수한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 그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에게는 큰 사자의 어금니가 있도다. 요엘 1:1-6.